

HEADLINE NEWS

지구온난화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확보조례 개정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2005년 1월, 지구온난화대책의 강화를 위해 환경확보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규모사업자는 물론, 전력회사와 같은 에너지공급사업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계획을 시행해야 하며, 가전제품 등에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에 관한 라벨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의 환기와 기업의 에너지 저감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확보조례 개정안은 都内 약 800개의 민간 대규모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온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를 자치구 및 시정촌 등 공공부문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회사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도 이산화탄소 저감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도입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환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202c3b0204b02.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환경친화형 주택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강좌 실시 (시애틀)
- ② 커뮤니티의 계획과 관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미국)

도시환경

- ③ 환경민원 절차 개선을 위한 온라인 민원신고서비스 실시 (덴버)
- ④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사름들을 위한 공원 프로그램' 추진 (미국)
- ⑤ 수미다江과 운하 수변 재생을 위한 구상 수립 계획 (동경)

도시교통

- ⑥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고장차량의 신속한 견인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휴스턴)
- ⑦ 웹사이트를 통해 보행자 및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기록을 보여주는 지도서비스 제공 (뉴욕)
- ⑧ 운전자의 의료/건강 정보를 기록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시범사업 추진 (애리조나州: Green Valley)

사회복지문화

- ⑨ 차별없는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피닉스)
- ⑩ 공공도서관에서 무료 건강세미나 개최 (샌디에이고)
- ⑪ 예술가들의 도심정착을 위한 주택 보조 (미국 벤츄라市)

행.재정

- ⑫ 영화·영상산업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오스틴)
- ⑬ 공공안전을 위해 정보기술 기반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미국: 메릴랜드州)

① 환경친화형 주택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강좌 실시 (시애틀)

미국 시애틀시는 시민들이 금전적 부담이나 주택외형의 변화 없이도, 주택을 건강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린빌딩 (Green Building)’ 강좌를 마련한다. 이 시민강좌는 시의 후원으로 2005년 3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6회에 걸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시애틀 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건축폐자재, 수변조경, 태양에너지, 온수시스템 그리고 빗물수집 등을 포함하여 친환경적 주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된다. 시는 이러한 주택리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물과 에너지를 아끼고 폐기물을 줄이며, 유해물질의 사용을 피하고 재활용 원료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택리모델링 안내책자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애틀시의 건조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다. (www.seattle.gov/news/detail.asp?ID=5024&Dept=20)

② 커뮤니티의 계획과 관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미국)

미국 콜로라도주와 버몬트주에서 활동중인 비영리단체 오튼 패밀리 재단(Orton Family Foundation)은 커뮤니티의 계획과 관리를 도와주는 ‘CommunityViz Planning’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에 저렴한 가격(185달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개발비용만 1,500만 달러가 든 이 프로그램은 개발로 인해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커뮤니티에 새로운 토지이용이나 건물 건축으로 인한 영향을 3차원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해 주는 의사결정 GIS(Decision-Making GIS) 소프트웨어이다. (www.communityviz.org)

③ 환경민원 절차 개선을 위한 온라인 민원신고서비스 실시 (덴버)

미국 덴버시는 시민들의 환경민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민들은 덴버시 공식 웹사이트(www.DenverGov.org)를 통해서 환경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대기과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목재소각, 차량의 공회전, 위험폐기물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 온라인 민원신고시스템은 시민들이 민원처리 상태에 대해 알 수 있으며, 기존 수작업에 의한 민원신고 절차에 비해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정보서비스 이용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온라인 민원신고시스템은 소비자의 서비스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민원신고는 온라인 이외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작년부터는 스페인어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www.denvergov.org/newsarticle.asp?id=8241)

④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한 공원 프로그램’ 추진 (미국)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TPL(Trust for Public Land)은 메트라이프 재단(MetLif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미국 도시들에 근린공원과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사람들을 위한 공원 프로그램(Parks for People Initiative)’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은 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장, 놀이터, 호수 등을 만들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배경은 근린공원과 오픈스페이스가 근린을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TPL은 1972년에 만들어진 후 총 35,000에이크에 이르는 425개의 도시근린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미국 도시 곳곳에 만들었으며, 커뮤니티, 정부기관, 주민들과 협력하여 도시의 버려진 땅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www.tpl.org) (www.metlife.org)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5] 수미다江과 운하 수변 재생을 위한 구상 수립 계획 (동경)

일본 東京都는 수미다江과 운하 수변공간의 매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로서 2005년 중에 수미다江과 운하 수변 재생을 위한 구상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미다江에 인접하여 카페와 상점을 유치할 수 있는 테라스 정비 외에 새로운 수상 관광노선의 개척, 운하에 레스토랑 개점, 주민들로 구성된 관광조직 만들기 등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도청 내에 하천관리, 항만운영, 관광진흥, 도시계획, 수질개선 등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관광시책연계추진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안을 다듬고 있는데, 추후 광역적인 연계도 도모할 계획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207c3b0704f07.html)

6]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고장차량의 신속한 견인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휴스턴)

미국 휴스턴市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른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정책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afe Clear'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市당국은 견인차량업체와 계약을 체결, 주요도로에 항시 견인차량이 대기하여 고장차량 발견 후 6분 이내에 견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호연동화를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혼잡 도로구간 및 혼잡시간대의 하역작업 허용시간을 줄였다. 그리고 도로점용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abcnews.go.com/WNT/Traffic/story?id=499098&page=1)

7 웹사이트를 통해 보행자 및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기록을 보여주는 지도서비스 제공 (뉴욕)

미국 뉴욕시에서는 최근 7년간 보행자 및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기록을 보여주는 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보행 및 자전거 등의 녹색교통수단을 옹호하는 단체인 'Transportation Alternatives'가 제공하는 이 지리정보체계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한 도로구간을 쉽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위험한 도로지점 및 사고빈발 지역에 대한 통계와 도로여건 개선사업이 미진한 도로구간에 대한 정보를 도표로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사고의 구체적 정보, 사고유형 및 피해자 연령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곧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www.transalt.org/press/askta/050211.html)

8 운전자의 의료/건강 정보를 기록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시범사업 추진 (애리조나주: Green Valley)

미국 애리조나주의 Green Valley 지역에서는 운전자의 의료/건강 측면의 특이사항을 표기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Red Badge' 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되는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에 처한 운전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응급처치하도록 하는 데 있다. 스티커에는 운전자의 의료기록뿐만 아니라, 현재 복용 중인 약과 담당의사 및 가족의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있어, 특히 건강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노년층 운전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구급대원도 스티커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당국은 이 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만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으나, 시행성과에 따라 2006년 2월부터는全州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www.dailystar.com/dailystar/allheadlines/61461.php)

9 차별없는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피닉스)

미국 피닉스시는 차별없는 평등한 고용기회와 공정한 고용을 위한 워크숍을 연속으로 개최했다. 먼저 2005년 3월 18일 시가 주최한 '평등한 고용기회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차별없는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과 성희롱 예방 등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현행 법 아래에서 평등한 고용기회를 위한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고용차별이 무엇이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어서 3월 24일에는 '공정한 고용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이 고용주, 종업원, 기업주,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도록 했으며, 법에서 금지하는 고용차별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고용차별에 관한 내용으로는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임신으로 인한 고용거부, 소수민족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 등이다. (phoenix.gov/NEWSREL/equalop.html)

10 공공도서관에서 무료 건강세미나 개최 (샌디에이고)

미국 샌디에이고 공공도서관은 2005년 3월과 4월에 5개 분관도서관에서 무료 건강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4월 7일 Point Loma/Hervey 도서관에서 여는 행사에서는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무료로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골밀도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행사 당일 열릴 건강세미나는 전미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샌디에이고 공공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0개 도서관 중 하나이다. 건강세미나를 통해서 시민들은 처방전으로 살 수 있는 약과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에 대한 설명, 약과 특정 음식물과의 반응, 약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약의 적정 복용량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강과 의료에 대한 안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홍보자료도 배부될 예정이다.

(www.sandiego.gov/public-library/pdf/prhealthf0305.pdf)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세계도시동향 ■

④ 예술가들의 도심정착을 위한 주택 보조 (미국: 벤추라市)

미국 남가주 벤추라(Ventura)市는 도시에서의 문화활동과 도심 재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류의 예술가들이 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市는 높은 집값 및 월세로 예술가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운타운에 50채의 주택을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다운타운 거리에 미술관, 전시장과 공연장, 예술품 상점 등 20,000평방피트의 공간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Artspace Project Inc.'라는 비영리단체가 제안하였으며, 이 단체는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 27개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오고 있다.

(www.latimes.com/news/local/la-me-arthouse9mar09,1,42664.story)

④ 영화·영상산업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는 2004년 발표된 '오스틴의 영화와 영상매체'라는 연구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영화·영상산업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www.cityofaustin.org/film)를 만들었다. 이 웹사이트는 영화·영상산업 관련 기업들이 오스틴市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영화촬영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市의 영화·영상관련 담당부서, 대출보증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기금 프로그램과 같은 자금지원 정보 등 市에서 영화·영상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영상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3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연간 3,500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市는 영화·영상산업으로 연 130만 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www.ci.austin.tx.us/news/2005/filmwebsite_2005.htm)

공공안전을 위해 정보기술 기반 사회안전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미국: 메릴랜드주)

미국 메릴랜드주 당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전략을 최근 공표하였다. 'I.D. MARYLAND'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각종 범죄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기관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도모하고, 사회기반시설의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당국은 경찰차량에 범죄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도와주는 장비를 갖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Smart Car' 프로젝트에 75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약 2,000만 달러를 들여 각종 범죄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최신 지문채취 및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갖추는 데 1,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주당국과 산하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공유와 관련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향후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www.governor.maryland.gov/pressreleases/2005/012405_idmaryland.html)